

“군산 근대역사 · 문화 체험 즐겨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9~12일 추석 연휴기간 스탬프 투어 · 거리문화 공연 등 진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추석에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군산의 근대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박물관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벨트화 지역 스탬프 투어 완료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추석 명절을 맞아 온가족에게 벨트화 지역 투어와 기념품까지 받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주차장 앞 공연장에서 보컬, 저글링, 국악 등 흥겨운 거리문화공연을 진행해 명절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릴 계획이다.

‘기억하자, 한국을 빛낸 독립운동가’라는 주제로 장미갤러리 1층 창작체험공간에서 초등학생과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명 자료 및 3D 종이퍼즐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근대미술관에서는 정미를 주요 모티브로 한 작품 및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풍경을 대담한 붓치로 표현한 ‘고상준 작가 초대전’이 전시되며 장미갤러리 2층에서는 산수, 화초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민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리빙민화협회 단체인 ‘관찰자, 잘 될거야!’가 전시된다.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3층에서는 일제강점기군산지역 인적·물적 수탈과 저항의 기록을 담은 ‘수탈과 저항의 도시, 군산’이 전시되며, 3.1운동기념관에서는 3.1운동 이후 체포 및 수배카드와 군산·육구출신 인물카드가 ‘남겨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추석에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군산의 근대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기록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의 주제로 전시된다.

박물관은 오는 1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천원 이상 통합권을 구입한 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인센티브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차원으로 추석 전 전체 전시장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손소독제 비치, 출입구 및 후문의 상시 환기를 통해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을 잘 준수하여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박물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 및 전시를 통해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으면서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물관 본관은 리모델링 공사로 관람이 제한되며, 벨트화 지역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장미갤러리, 위봉함)과 금강권 전시장(3.1운동기념관, 채만식문학관, 금강미래체험관) 및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정상 운영하며 추석 당일(9월 10일)에는 무료 관람을 진행한다. /군산=김평곤 기자

하수정 작가 개인전 열린다

기린미술관에서 13일부터 진행

하수정 작가는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 오는 가을을 풍성하게 장식한다. 하수정 작가는 전주사범을 12회로 졸업한 후 교사로 12년간 재직하면서도 예술세계에도 열정을 쏟았다.

강암 송성용 선생께 25세부터 서예를 사사 받았고 유제식 교사로부터 10년간 한학을 수학해 후에는 국전에서 서예부분에 특선을 받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는 전북관공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신작들이 전시되는 작품들은 총 28점이다. ‘연담’ 등 대작이 5점이고, ‘국화’ 등 액자형이 10점이며, ‘반야심경’ 족자 11점 등이 소개된다.

하 작가는 자연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어린 소녀의 소품장난과도 같은 천진함이 가득하여 동심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 놓는다. 또한 소재나 주제 및 기교가 다양하여 격식에 역매이지 않아서 손가락으로 그리는 지루해도 한 몫을 하였다.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림의 재료를 다변화하기 위한 작업중 천연염색을 손 꼽는다. 처음에는 화선지에서 후에는 모든 섬유에 염색 시도 후에 화폭으로 작업을 변형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국제적인 화가이기도 하다. 54회의 개인전을 하였는데 이 중 30회가 초대를 받아



전시회를 하였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27회의 개인전을 한 것도 한국의 작가로서 그리 쉬운 전시 횟수는 아니다.

하수정 작가는 전라북도과 대한민국의 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초대작가, 강암연묵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전 특선, 전라북도 미술대전 서예부문 최우수상 수상, 전주시민의장 문화장 수상, 전라북도 해외전시작가 지원사업 작가로도 선정되었다. /김재훈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프랑스 청소년 위한 한국 무형유산 보급 추진

프랑스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함께 체험해요 한국 무형유산’ 보급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시작돼 11월 말까지 프랑스 25개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배우고 있는 프랑스 학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체험은 시간·거리·장소의 제약 없이 영상으로 문화유산과 기트 제작을 설명하고, 이를 따라 재구성된 키트를 만들면서 한국 문화유산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식이다. 특히 체험 영상에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으로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파비앙(Fabien Yoon)’이 출연해 이목을 끈다. 파비앙은 국가가 무형유산 전승역량을 인정한 ‘이수자’와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봉산탈춤을 만들어 봉산탈춤을 추기도 하고, 나전으로 보석함과 단청으로 컵받침을 만든다. 이수자로는 봉산탈춤 김중해, 나전장 이상훈, 단청장 김석근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이에 앞서 국립무형유산원은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에서 ‘프랑스 청소년 대상 한국 무형유산 인식 확대 및 보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 무형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프랑스 청소년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영상위원회, ‘전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사업 작품 19~23일 모집

(사)전주영상위원회는 ‘2022 전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사업의 작품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유 소재의 장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편 내외의 작품에 총 지

원금 2천만원 규모로 진행되는 ‘2022 전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거주자나 도내 소재 제작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작품 접수는 19일~23일까지다. 접수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획홍보팀 이메일(jkp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GSTC 아·태 지속가능관광 국제 콘퍼런스’ 개최

15~17일 새만금컨벤션센터서 진행

2022 GSTC 아·태 지속가능관광 국제 콘퍼런스가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에서 열린다.

15~17일 3일 동안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관광관련 국제기구, 유관기관, 학·협회, 주한 외국 대사관, 업계를 비롯한 전북의 미래 관광을 이끌어갈 MZ세대 등 400여 명이 참여한다.

첫날에는 GSTC(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루이지 카브리니 의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지속가능관광 국제 콘퍼런스, WITH 포럼, 글로벌 지속가능 문화관광 외교 콘퍼런스가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군산 시민과 함께하는 드론 라이트 쇼’가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10일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동시세션이 진행된다. 오전에는 새만금과 싱가포르 센토사 사파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특별 세션과,

MZ세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오후에는 관광지 관리, 글로벌 마이스 표준 개발 워크숍 및 지속가능 문화관광 외교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은 전주 한옥마을과 전주시 일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전북 관광지 및 마이스 인프라 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이 행사에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 8월 9일 새만금개발청·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군산시의 행사 협력 및 공조를 다짐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전북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찾아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선도하는 지속가능관광 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2023년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년한지관, 한지 설치 미술작품 전시

전주천년한지관은 9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주역 문화정거장’에서 한지 설치 미술작품 ‘기로(岐路)’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주의 시간 속으로 출발하는 ‘전주특급열차 JTX’와 함께 운영된다. 이는 ‘전주역 문화정거장’ 조성 후 갖는 첫 전시로 △전주의 과거·현재·미래를 엿볼 수 있는 영상 △전주 맛집들의 진한 한상차림을 녹여낸 전주가맥수퍼 등 다양한 전주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주천년한지관은 이중 전주한지 부문을 담당, ‘기로(岐路)’라는 전시명으로 설치 미술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전시는 전주특급열차 입장권을 통해 관람 가능하며, 현장 예매와 네이버 예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관이다. /장은성 기자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하모니

제6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제

10월 17일(토) 오후 4시~

전주 바울교회 2층 그레이스홀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2022년 9월 17일(토) 오후 4시~

전주 바울교회 2층 그레이스홀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